

“심리방역 필요한 시기… 명상으로 건강한 삶 되찾아야”

동국대 서울국제명상엑스포 간담회

문체부·서울시 후원… 17일 개최 대주제 ‘2022 명상, 새로운 세계’ “다양한 명상 플랫폼 구축 목표”

동국대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후원으로 오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제3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를 개최한다.

‘2022 명상, 새로운 세계’를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명상엑스포는 지친 심신을 명상으로 치유하며 건강하게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자는 취지다. 행사는 학술, 체험, 문화, 산업, 명상놀이터, 명상도서관 등 다양한 분야로 준비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자광 스님은 13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삶 자체의 의미도 모르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잡아 주기 위해 명상 엑스포 진행했다”며 “동국대가 단순한 명상 방법 제시를 넘어 발전적 모델들을 제공해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엑스포는 뉴노멀 시대의 흐름에



13일 동국대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제3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기자 간담회 모습이다.

/신하은 기자

맞춘 국민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대중적 심리방역의 필요성에서 시작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인해 다수가 우울감을 경험했다. 심지어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탄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했던 ‘연도별 성별·연령별 우울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인원은 59만

5043명이다. 반년간의 우울증 치료 환자가 60만명에 육박했던 것이다.

동국대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자 심리방역으로 명상을 선택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력 강화는 물론이고 심리 및 신체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비 과정도 중요하다고 봤다.

행사의 학술프로그램 중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세계적 규모의 이번 콘퍼런스는 ‘명상과 치유’, ‘명상과 과학’, ‘명상과 미래사회’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국내외 저명한 연구자들이 모여 다양한 강연과 토론을 펼

친다. 특히 동국대와 하버드 의대 IMP가 공동주최한 자리로 강연의 수준과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동국대 명상엑스포 운영위원으로 학술을 담당할 서광 스님은 “치유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상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는 자리”라며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명상, 명상 플랫폼을 확보하고 구축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동국대는 이번 엑스포에서 VR 명상기기를 활용한 오프라인 체험, 메타

버스 구축 등 명상의 대중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유입이 적은 젊은층의 유입을 이끌고자 함이다.

서광 스님은 “젊은층, 어린아이들은 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VR 명상 실험 결과 9살 아이도 명상을 잘 따라하며 흥미롭게 즐겼다”고 전했다. 이어 “타깃층이었던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노년층도 예상외로 흥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동국대는 이번 엑스포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향상성을 추구하고자 메타버스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국내외 최초로 명상 전문 온라인 아카이빙 도서관을 구축하는 등 찾아가는 명상을 시도하고 있다. 속도가 지배하는 첨단 IT시대에서 명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체계가 구축돼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동국대는 “코로나19로 지친 심신 치유법으로 명상은 더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닫힌 세상을 열고, 닫힌 마음을 여는 치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교육부, 학업성취도 평가 디지털 전환 추진

2021년 학업성취도 전년 수준 컴퓨터 기반 평가 시스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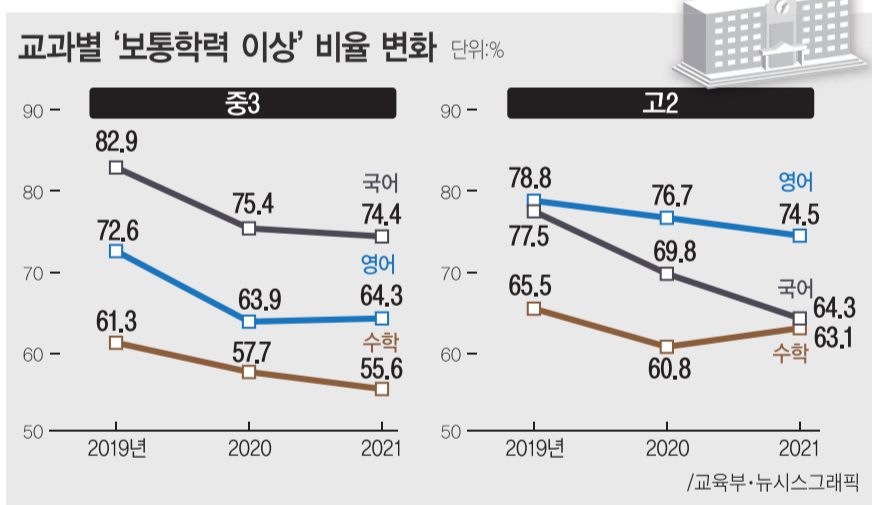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향후 대응 전략을 13일 발표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교과별 성취수준은 모든 교과에서 전년과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국어의 3수준(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64.3%로 전년 대비 5.5%p 감소했다.

학계 전문가 및 현장 교원들은 정책적 지원 성과 등을 점검하기는 어렵지만 등교수업이 확대된 2021년에도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수준의 학사 운영이 이뤄지지 못해 학습·심리·정서 등 단기간의 회복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 전환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 도입한다고 알려졌다.

평가 대상은 2022년 초6, 중3, 고2를 시작으로 2023년 초5·6, 중3, 고1·2이며 2024년부터는 초3부터 고2 학생들



순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밀한 학업성취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되, 평가 결과는 학생·학부모·교사만 활용하도록 해 평가 결과를 통한 서열화도 철저히 차단한다.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참여 희망 학교는 컴퓨터 기반 평가시스템에서 평가 시행 날짜, 응시 교과 등을 학급 단위로 신청해 진행된다.

2025년부터는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개통 예정에 있다. 해당 플랫폼과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을 구축해 개별 학생의 수준 및 결손 부분 등을 정밀하게 진단해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결손과 교육 격차 문제는 긴 안목으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서울시교육청 2학기 농촌유학 참여 학생 모집

내일부터 21일까지 접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5일부터 21일까지 2022년 2학기 농촌유학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12월부터 전라남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1년 첫 농촌유학생을 모집했다. 농촌유

학 시작 1년만에 참가자가 257.3%로 증가했고, 절반 이상의 높은 연장률을 보인다.

농촌유학생에게 학생 1인당 50만원의 초기정착금(1회)과 매달 유학비를 지원한다. 유학비는 가족체류형의 경우 가구당 학생 수에 따라 월 30만~50만원을 지급하며, 홈스테이형은 학생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교육급여수여자의 경우 가구당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22년 2학기 농촌유학은 6개월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2023년부터는 농촌유학 기간이 1년 단위로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22학년도 2학기 농촌유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과 보호자는 신청기간 내 소속 학교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하은 기자

이화여대, 기상기후데이터 전문인재 육성

기상산업기술원과 특성화대학원 사업

이화여자대학교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지난 10일 이화여대 ECC에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사업은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기상기후 빅데이터에 기반한 미래 신산업을 이끌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이번 특성화대학원 사업 선정으로 이화여대는 향후 4년 7개월간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을 합쳐 총 22억6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올해 2학기부터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활용 관련 교

과목을 이수하고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이화여대는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석·박사과정 신입생과 트랙이수과정 학생을 연간 15명 이상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 9월부터 대학원을 운영해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활용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책임자인 유창현 교수는 “학과 교수님 모두 합심해 이뤄낸 성과로서 본교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기상기후데이터 분석 전문인력이 선도적으로 배출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하은 기자

연세대 고효율 전자현미경 이미지 분석법 개발

김관표 교수 연구팀

딥러닝 AI 적용… 초당 수백장 분석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김관표 교수(사진) 연구팀이 나노 물질의 구조 분석에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을 적용해 전자현미경 이미지 분석 방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실제 활용가치를 높인 방법론을 개발했다.

김 교수 연구팀은 딥러닝 기반 이미지 분석법을 차세대 반도체 소자로 주목받는 이황화몰리브덴(MoS2)에 적용해 황(S) 원자가 탈락하면서 발생하는 원자 결함 및 다양한 종류의 구조 다형체를 확인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지능을



통해 전문가들이 수십 분 동안 분석해야 하는 데이터를 초당 수백 장 이상 분석 가능하며, 분석 정확도 또한 전문가의 정확도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보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나노 분야 세계적인 학술지인 ‘나노 레터스(Nano Letters, IF 11.189)’에 게재됐다.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및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의학 연구단의 지원으로 연세대 물리학과 김관표 교수, 이기현, 박진섭 통합과정생 및 최소연 연구원이 주도해 진행됐다.

/신하은 기자